

은시호(銀柴胡)의 기원에 대한 문헌 고찰

이금산 부교수^{1,2}, 도의정 연구교수², 이승호 조교수³, 김정훈 부교수^{4*}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2.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3.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4.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교실

The medicinal origin of Eunsiho: A literature review

Guemsan Lee^{1,2}, Eui Jeong Doh², Seung-Ho Lee³, Jung-Hoon Kim^{4*}

1.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2.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3.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
4.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

Abstract

Eunsiho (銀柴胡, *Stellariae seu Gypsophilae Radix*) is defined as the root of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Bunge or *Gypsophila oldhamiana* Miq. (Caryophyllaceae) in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However, the medicinal origin of Eunsiho has often been confused with that of Siho (柴胡, *Bupleuri Radix*) because of the similarities in their names and efficac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dicinal origin of Eunsiho was investigated botanically and pharmacologically through classic and modern herbal literature review. Eunsiho was recognized as a specific local product or counterfeit of Siho in the early 16th century. However, since the late 16th century, the medicinal application of Eunsiho was moved to another category, namely a deficiency heat-clearing medicin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Siho. Original Eunsiho was confirmed b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ts root (namely whitish-yellow color, larger size, and soft texture) and its efficacy (clearing bone-steaming fever); however, since the 19th century, they were identified as light black color, slender size, with exterior-releasing effect. After *S. dichotoma* var. *lanceolata* was registered as the

Correspondence: 김정훈(Jung-Hoon Kim)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
Yo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50612

Tel: +82-51-510-8456, E-mail: kmsct@pusan.ac.kr

Received 2021-05-26, revised 2021-06-03, accepted 2021-06-07, available online 2021-06-09
doi:10.22674/KHMI-9-1-6



origin of Eunsiho in Chinese Pharmacopeia in 1963, the Saneunsiho (山銀柴胡) species were treated as counterfeits or alternatives of Eunsiho. *S. dichotoma* var. *lanceolata* was officially added in the Pharmacopeia in 2011. However, the roots of *G. oldhamiana* are exclusively used as Eunsiho in Korean Pharmacopeia. Unfortunately, the medicinal use of *G. oldhamiana* lacks sufficient evidenc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provide clear evidence of the medicinal use of *G. oldhamiana*.

Keywords: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Gypsophila oldhamiana*, *Stellariae Radix*, *Gypsophilae Radix*, *Eremogone juncea*, *Silene jensiseensis*, *Silene fissipetala*

서론

銀柴胡는 淸虛熱, 除疳熱 효능으로 陰虛發熱, 骨蒸勞熱, 小兒疳熱 등에 응용¹⁾하는 淸虛熱藥이다. 《東醫寶鑑》이나 《方藥合編》, 《晴崗醫鑑》 등의 서적에 기재된 처방에서 사용된 바가 없기에 국내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개정발간된 방제학 공통교재에 銀柴胡가 포함된 淸骨散 등의 처방과 이에 대한 각종 활용법이 제시²⁾되었으므로 앞으로의 활용이 기대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정서에 기재된 銀柴胡의 기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기원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공정서³⁾는 석죽과(Caryophyllaceae)에 딸린 銀柴胡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Bunge 와 대나물(長蕊石頭花, 霞草) *Gypsophila oldhamiana* Miq.의 뿌리를 銀柴胡의 기원으로 제시한 반면, 중국⁴⁾은 전자만, 북한⁵⁾은 후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공정서에는 銀柴胡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국내에서 벼룩이울타리 *Eremogone juncea* (M.Bieb.) Fenzl [= *Arenaria juncea* M.Bieb.]도 銀柴胡로 사용한다⁶⁾는 기록도 있으나 그 출처가 분명치 않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공정서의 銀柴胡에 대한 기원 차이는 임상활용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銀柴胡 유통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銀柴胡 중 수입품은 대부분 *Stellariae Radix*이며, 국내산은 *Gypsophilae Radix* 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약재 유통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銀柴胡의 기원이 설정되는 과정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초 고문헌 고찰을 통해 銀柴胡의 유래를 살펴보고, 銀柴胡에 대한 역대 諸家の 인식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공정서에 銀柴胡의 기원이 설정되는 과정을 추정하였다.

본론

明代-淸末까지의 주요 본초서⁶⁾와 방제서⁶⁾, 《中藥志》⁷⁾와 같은 근현대 본초서를 대상으로 銀柴胡와 연관된 내용을 분석하여 銀柴胡의 연원을 추적하였다.

1. 明代 中期의 銀柴胡

전문 본초서 중에서는 明代 15 세기의 《滇南本草》⁸⁾에 ‘治小兒因傷食吐瀉 不急調治 … 車前子 … 淮山藥 … 發熱加銀柴胡’와 같이 車前子를 활용한 처방의 가감법에 그 이름이 등장하나 기원을 판단할 만한 기술은 없다.

그 후 16 세기의 《本草綱目》⁹⁾에서 ‘근래에 한 종이 있는데 뿌리가 桔梗이나 沙參처럼 희고 큰데



저자거리 사람들이 銀柴胡로 위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냄새가 없으니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近時有一種 根似桔梗沙參白色而大 市人以偽充銀柴胡 殊無氣味 不可不辨].’고 하여 銀柴胡라는 명칭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이 柴胡의 조목에 위치하고, 이어서 언급된 修治에서 ‘凡采得銀州柴胡’라 하였으므로 李時珍이 언급한 銀柴胡는 ‘銀州產’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宋代 11 세기의 《本草圖經》¹⁰⁾에 ‘柴胡는 洪農과 冤句에서 나는데 지금은 關陝(현재의 陝西省과 서북쪽 일대)와 江湖間近道(현재의 湖北, 河南으로 추정)에도 있으며 銀州(현재의 陝西省 米脂縣 일대)의 것이 좋다[柴胡 生洪農山谷及冤句 今關陝 江湖間近道皆有之 以銀州者為勝].’라고 한 것과 동시대의 《太平惠民和劑局方》¹¹⁾에 수록된 龍腦雞蘇丸에서 ‘柴胡 要眞銀州者 二兩’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南宋의 《幼幼新書》¹²⁾ 26 권 疳勞篇에 수재된 ‘雞肉煎丸’의 銀柴胡부터 최소한 16 세기까지의 銀柴胡는 ‘銀州產 柴胡’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동 책 柴胡의 조목에 ‘機에 이르길 解散에는 北柴胡를 사용하나 虛熱에는 海陽(현 山東省; 산둥반도 동남쪽 해안 일대)의 軟柴胡가 좋다고 하였다. 時珍이 말하대 銀州는 지금의 延安府 神木縣 五原城(陝西省 일대)으로 자취만 있을 뿐이며 이곳에서 나는 柴胡는 길이가 한 尺 정도고 약간 희고 질이 무른 것으로 구하기 쉽지 않다. 북쪽에서 나는 前胡처럼 연한 것이 지금 사람들이 北柴胡라 부르는 것으로 약으로 써도 좋다. 남쪽에서 나는 것은 前胡를 닮지 않고 쑥의 뿌리처럼 생겼는데 단단하여 사용할 수 없다. (柴胡의) 싹은 부추잎이나 댓잎을 닮았는데 댓잎을 닮은 것이 좋고, 가는잎방풍을 닮은 것은 최하품이다[機曰 解散用北柴胡 虛熱用海陽軟柴胡為良. 時珍曰 銀州 即今延安府神木縣五原城是其廢跡 所產柴胡長尺余而微白且軟 不易得也. 北地所產者 亦如前胡而軟 今人謂之北柴胡是也 入藥亦良. 南土所產者 不似前胡 正如蒿根 強硬不堪使用. 其苗有如韭葉者竹葉者 似竹葉者為勝. 其如邪蒿者最下也.]’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明代 중반까지 柴胡의 한 종류로서 ‘銀州產 柴胡’가 존재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알 수 없는 약물이 柴胡로 둔갑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유통되었던 ‘銀州產 柴胡’와 그 위품, 北柴胡, 軟柴胡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明末~清初의 銀柴胡

이후 明末~清初 서적에도 이러한 혼란이 고스란히 남아있긴 하나 일부 문헌에서는 다소 변화가 엿보인다.

明末의 倪朱謨는 《本草彙言》¹³⁾에서 柴胡의 산지와 식물형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즉, 倪朱謨¹³⁾는 柴胡를 銀柴胡와 北柴胡, 軟柴胡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銀柴胡는 關西(현 陝西省 서북쪽) 일대에 나며 색이 희고 성글며 쥐꼬리처럼 길쭉하고, 北柴胡는 山東 일대에 나며 검고 가늘고 뻑뻑하며 짧고 빗자루같고, 軟柴胡는 海陽(현 山東省 산둥반도 동남쪽 해안 일대)에서 나는데 거말고 가벼우며 무르다. … 銀柴胡는 淸熱하여 陰虛內熱을 다스리고, 北柴胡는 淸熱하여 傷寒邪熱을 다스리며, 軟柴胡는 淸熱하여 肝熱骨蒸을 다스린다. [倪朱謨曰 柴胡 有銀柴胡 北柴胡 軟柴胡三種之分. 銀柴胡 出關西諸路 色白而鬆 形長似鼠尾, 北柴胡 出山東諸路 色黑而細密 形短如帚, 軟柴胡 出海陽諸路 色黑而輕軟 一名三種也. … 銀柴胡淸熱治陰虛內熱也, 北柴胡淸熱治傷寒邪熱也, 軟柴胡淸熱治肝熱骨蒸也.]’고 하였다. 더불어, 倪朱謨¹³⁾는 이전 시대의 처방을 예로 들어 《日華子》의 久熱羸瘦와 《經驗方》의 勞熱에 쓰인 것은 銀柴胡, 《傷寒論》의 것은 北柴胡, 補中益氣湯이나 逍遙散, 靑蒿煎丸의 것은 軟柴胡 [《日華子》所謂補五勞七傷 治久熱羸瘦 與《經驗方》治勞熱 靑蒿煎丸 少佐柴胡 言銀柴胡也. 《衍義》云《本經》並無一字治勞 而治勞方中用之 鮮有不誤者 言北柴胡也. 然

又有真藏虛損 原因肝鬱血閉成勞 虛因郁致 熱由郁成 軟柴胡亦可相機而用。如傷寒方有大小柴胡湯 仲景氏用北柴胡也。脾虛勞倦 用補中益氣湯 婦人肝鬱勞弱 用逍遙散 青蒿煎丸 少佐柴胡 俱指軟柴胡也]라고 하여 銀柴胡가 柴胡로 사용되는 다른 약재들과 효능상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동년에 繆希雍은 《神農本草經疏》¹⁴⁾에서 ‘생각컨대 지금 柴胡가 세속에 두 가지가 있다. 얇게 누르고 큰 것이 銀柴胡이며 勞熱骨蒸을 다스리는 데 쓰고, 약간 거뭇고 가느다란 것은 解表發散할 때 쓴다. 《本經》에 두 종을 말하지 않은 것은 쓰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銀州산의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升散이 낮고 虛熱을 제거하는 약이 아님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 《衍義》에서 말하길 … 일찍이 勞病은 하나의 臟이 虛損한 상태에서 다시 邪熱을 받은 邪로 인한 虛가 勞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勞는 둘러싸인 것(牢)이다. [按今柴胡俗用有二種。色白黃而大者 為銀柴胡 用以治勞熱骨蒸, 色微黑而細者 用以解表發散。《本經》並無二種之說 功用亦無分別 但云銀州者 為最 則知其優於升散 而非除虛熱之藥明矣。… 《衍義》曰 … 嘗原病勞 有一種真臟虛損 復受邪熱 邪因虛而致勞 故曰勞者 牢也.]’라고 하였다. 즉 柴胡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약재 중 색이 밝고 크며 勞熱骨蒸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을 銀柴胡라고 하였고, 本經에서의 ‘銀州’ 柴胡는 다른 지역의 柴胡에 비해 升散작용이 뛰어난 것이지 銀柴胡와 같이 虛熱을 제거하는 약은 아닌 것으로 기재하였다. 즉, 銀柴胡의 약재 형태와 효능은 柴胡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의 郭佩蘭은 《本草彙》¹⁵⁾에서 ‘銀夏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약간 희고 무른 것이 銀柴胡인데 勞弱骨蒸을 다스릴 때 사용하고, 약간 거뭇고 가느다란 것은 解表發散할 때 사용한다. [柴胡 … 產銀夏(州名陝西)者 獨勝。色微白而軟者 為銀柴胡 用以治勞弱骨蒸, 色微黑而細者 用以解表發散]’고 하여 繆希雍의 견해와 같이 하였다.

동시대의 李中梓는 《本草通玄》¹⁶⁾에서 ‘銀柴胡는 (柴胡와) 사용법이 같으나 勞羸한 사람에게 더욱 요긴하다[銀柴胡主用相同 勞羸者尤為要藥]’라고 주장하여 효능 면에서 柴胡와 銀柴胡를 구분시켰다.

淸初의 張志聰은 《本草崇原》¹⁷⁾에서 ‘柴胡는 단단하고 무른 두 가지가 있다. 단단한 것은 大柴胡이고 무른 것은 小柴胡이다. 小柴胡는 銀州에서 나는 것이 좋은 탓에 銀柴胡라고도 한다. 지금 상인이 따로 다른 어떤 종인지도 모르는 풀의 뿌리 중 희고 큰 것을 찾아 銀柴胡라고 한다. 이는 가짜일 뿐이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柴胡有硬軟二種 硬者名大柴胡 軟者名小柴胡。小柴胡生於銀州者 為勝 故又有銀柴胡之名。今市肆中另覓草根白色而大 不知何種 名銀柴胡 此偽充也 不可用]’고 하며 ‘銀州產 柴胡’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사용에 있어서는 구분치 않았다.

동시대의 閩越은 《本草詳節》¹⁸⁾에서 ‘(柴胡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얇은 누런빛의 큰 것은 銀柴胡로 그 색깔대로 肺에 들어가며 다소 튼실하여 쉽게 散하지 않아 骨蒸을 다스리는 데 쓴다. 색이 약간 거뭇고 가느다란 것은 解表하여 發散할 때 사용한다. [柴胡 … 有二種 色白黃而大者 為銀柴胡 以其色白入肺 質稍實 不輕散 用治骨蒸, 色微黑而細者 用以解表發散]’라고 하였다. 《本草詳節》이 《本草綱目》을 저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음¹⁸⁾을 감안하면, 李時珍이 언급한 銀(州)柴胡를 효능상의 차이가 있는 柴胡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汪昂의 경우에는 《本草備要》¹⁹⁾에서 ‘熱이 骨髓에 있으면 柴胡만 가능하다. 만약 銀柴胡라면 한 번 복용으로 충분하지만 남쪽의 것은 힘이 약하므로 세 번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 柴胡 또한 능히 骨蒸을 물러나게 한다. [熱有在皮膚在臟腑在骨髓 在骨髓者 非柴胡不可。若得銀柴胡 只須一服 南方者力減 故三服乃效也 … 昂按 據孫氏之說 是柴胡亦能退骨蒸也]’고 하였으며, 그의 다른 저서 《本草易讀》²⁰⁾에서는 시중에서 가짜로 銀柴胡를 충당한다(近有一種 根似桔梗 沙參



白色而大 市人以偽銀柴胡는 李時珍의 설을 인용하였다. 즉, 汪昂은 熱의 존재 부위 중 특히 骨髓에 있는 熱을 제거하는 데 柴胡가 효능이 뛰어나고 남방의 것보다 銀柴胡가 낫다고 언급하였으나, 李時珍과 마찬가지로 ‘銀州產 柴胡’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明末~清初에는 대체로 銀柴胡를 柴胡의 한 종류로 취급하면서도 효능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구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능 차이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원을 판별할 만한 식물 형태 또는 약재 형태의 구체적인 묘사는 빈약하여 기원식물을 추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本草綱目》 이후의 서적에서 柴胡는 대체로 ‘희고 무르면서 큰 것’과 ‘거뭇고 가느다란 것’의 두 종으로 축약되었고, 이 중 骨蒸勞熱과 같은 虛熱證에는 ‘白黃色이면서 큰 것’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柴胡에 비해 ‘희고 무르면서 큰 것’이라는 점은 현재의 銀柴胡 *Stellariae Radix* 가 柴胡 *Bupleuri Radix* 에 비해 색이 황백색이고 무르다는 특징⁶⁾과도 유사하여 고문헌상의 기록과 다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清代 中期 ~ 中華民國의 銀柴胡

17 세기가 끝나갈 무렵, 張璐가 《本經逢原》²¹⁾에서 柴胡와 銀柴胡를 별도의 약물로 분류하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張璐²¹⁾는 ‘銀州者良. 今延安府五原城所產者 長尺余 肥白而軟’라 하여 李時珍의 서술에 ‘두텁다’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銀州產 柴胡를 銀柴胡로 확정지어 柴胡와는 별개의 약물로 취급하였다. 이 특징은 柴胡에 비해 銀柴胡가 크다⁶⁾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한, ‘그 성미가 石斛과 크게 멀지 않고 清熱할 뿐만 아니라 涼血을 겸한다. [銀柴胡 … 其性味與石斛不甚相遠 不獨清熱兼能涼血]’고 언급하여 銀柴胡의 기원에 결부된 효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즉, 현재 기준에서 柴胡(*Bupleuri Radix*)는 산형과(Apiaceae)에 딸린 식물의 뿌리를, 銀柴胡(*Stellariae Radix* 또는 *Gypsophylae Radix*)는 석죽과(Caryophyllaceae)에 딸린 식물을 기원으로 한다는 점¹⁴⁻⁶⁾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古代의 銀州는 지금의 陝西省 榆林市 米脂縣 일대로, 현재에도 이 지역의 인근과 內蒙古 中西部, 寧夏 東北部 등과 더불어 銀柴胡(*Stellariae Radix*)의 주산지로서 손꼽히는 지역²²⁾임을 감안한다면, 張璐가 규정한 銀柴胡는 현재의 *Stellariae Radix*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효능면에서도 ‘무릇 虛勞의 처방에는 오로지 銀柴胡가 마땅하다. 만약 北柴胡를 사용하여 虛陽을 升動시킨다면 發熱 喘嗽이 심해져 편안히 집에 있지 못하게 되니 어찌 구분치 못하여 섞어 쓸 수 있겠는가 [凡入虛勞方中 惟銀州者為宜. 若用北柴胡升動虛陽 發熱喘嗽愈無寧宇 可不辨而混用乎]’라고 하여 명확히 구분 지었다.

그 후 70 여년 뒤의 趙學敏은 《本草綱目拾遺》²³⁾에서 《神農本草經疏》, 《本草匯》, 《本經逢原》, 《百草鏡》 등의 諸家の 說을 총 정리하여 銀柴胡를 柴胡와는 별도의 약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銀柴胡가 비록 發表한다고는 하지만 柴胡처럼 준열하지 않다. 《本草綱目》은 한데 섞어놓고 구분하지 않았다. [又銀柴胡雖發表 不似柴胡之峻烈 綱目俱混而未析]’고 하고 虛勞肌熱, 骨蒸勞瘵, 熱從髓出, 小兒五疳羸熱을 主治症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대 분초학^{1,6)}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이다. 한편, ‘藥辨에 이르길 銀柴胡는 寧夏鎮에서 나는데 모양이 黃芪와 비슷하고 안에는 甘草串이 있다. [藥辨云 銀柴胡出寧夏鎮 形如黃芪 內有甘草串]’는 형태 묘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Stellariae Radix* 의 형태적 특징⁶⁾과도 일치한다.

동 시기의 黃宮繡도 《本草求真》²⁴⁾에서 銀柴胡를 별도의 약물로 분류하고 ‘銀柴胡(崑入腎 兼入胃)는味甘微寒無毒하며 효능과 쓰임은 石斛처럼 胃經에 들어가 虛熱을 없앤다. 石斛도 腎經에도 들어

가 氣를 滯하여 筋骨을 튼튼히 하는 반면, 이것(銀柴胡)은 腎에 들어가 涼血함이 다를 따름이다. [銀柴胡(專入腎 兼入胃)味甘微寒無毒 功用等於石斛 皆能入胃而除虛熱, 但石斛則兼入腎 滯氣固筋骨 此則入腎涼血之為異耳]'고 하여 張璐²¹⁾의 견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대개 北柴胡는 少陽清氣를 올려 上行시키는 반면에, 이것(銀柴胡)은 氣味가 아래로 이르니 저것(北柴胡)과 매우 다르다. 만약 北柴胡를 虛勞에 쓴다면 咳嗽發熱이 심해져 편안한 날이 없게 되는데 어찌 구분 못하고 섞어 쓸 수 있겠는가? 銀州에서 나는 것이 좋다고 하여 銀胡라고 불린다. [蓋北胡能升少陽清氣上行(升清發表 必有外邪者方用) 此則氣味下達(入腎涼血) 與彼迥不相符. 若用北胡以治虛癆 則咳嗽發熱愈無寧日(陰火愈升愈起) 可不辨而混用乎? 出銀州者良 故以銀胡號之]'고 하여 張璐²¹⁾의 견해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得配本草》²⁵⁾의 '産銀州銀縣者良. 外感 生用 多用'과 같은 기록처럼 일부 문헌에서는 여전히 銀柴胡와 柴胡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7~18 세기에는 銀柴胡는 柴胡로부터 독립한 개별 본초로 인정받았으며 기원을 유추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등장하였다. 효능 측면에서 張璐²¹⁾와 黃宮繡²⁴⁾가 石斛과 비교한 내용은 柴胡의 아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임상 응용에도 주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앞선 18 세기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19 세기의 기록에서 銀柴胡의 연원에 대한 서술은 다소 혼란스럽다. 《本草述鉤元》²⁶⁾은 '蓋熱有在皮膚 在臟腑 在骨髓非柴胡不能治 若得銀柴胡 只須一服便效'라고 하여 여전히 李時珍이나 汪昂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本草分經》²⁷⁾은 '銀柴胡專治骨蒸勞熱 小兒五疳'이라고 하고, 《本草便讀》²⁸⁾은 '銀柴胡出銀州. 其質堅 其色白 無解表之性'라 하여 柴胡의 설명에 銀柴胡의 효능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나 독립적인 본초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本草問答》²⁹⁾은 '斷不可用四川梓潼產柴胡 價極賤 天下不通用 只緣藥書有軟柴胡 紅柴胡 銀柴胡諸說 以偽亂真 失仲景之藥性 可惜可惜'라 하여 銀柴胡에 대한 독립적인 인식을 보이지는 않고, 위풍으로 인한 약재 유통의 혼란으로 柴胡의 정확한 藥性 발휘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 세기의 혼란은 20 세기에 들어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曹炳章은 《增訂偽藥條辨》³⁰⁾에서 《本草綱目拾遺》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銀柴胡를 설명하고 '銀柴胡는 섬서성 영하부 감보주와 산서성 대동부에서 모두 난다. 두텁고 크며 실하며 연한 찻쌀처럼 희고 가는 심이 없는 것을 골라 사용하는 게 좋다. 가짜는 이렇지 않다.[銀柴胡 陝西寧夏府甘肅州及山西大同府皆產. 選肥大堅實 色白軟糯 無沙心者為佳 偽者尚無]'라고 묘사하였는데, 이 묘사는 현재 *Stellariae Radix*의 약재 형태⁶⁾와 부합한다. 한편, 清末~中華民國의 張山雷는 《本草正義》³¹⁾에서 '지금(柴胡와 銀柴胡)를 둘로 나누어 쓰는 것은 모두 곧 張璐의 공이다. [今之二種分用者 蓋即石頑提倡之力]'라 하여 張璐의 공을 높이 샀으며, '趙恕軒《綱目拾遺》謂熱在骨髓 非銀柴胡莫療. 則以治虛勞 肌熱骨蒸 勞瘵熱從髓出 及小兒五疳羸熱 蓋退熱而不苦泄 理陰而不升騰 固虛熱之良藥. 苟勞怯而未至血液枯絕 以此清理虛火之燥灼 再合之育陰補脾 尚可徐圖挽救 非北柴胡之發泄者 所可同日語也'라 하여 銀柴胡의 清虛熱 효능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4. 現代의 銀柴胡

《中華人民共和國藥典》은 銀柴胡를 1963 년판³²⁾에 수재한 이후로 줄곧 *Stellariae Radix* 를 기원으로 삼았다. 한편, 그 이전의 1959 년에 발표된 《中藥志》⁷⁾에서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이외의 것을 ‘山銀柴胡’로 총칭하며, 각 지역에서 山銀柴胡로 쓰이는 식물을 *Eremogone juncea* (M.Bieb.) Fenzl [= *Arenaria juncea* M.Bieb.], *Silene fissipetala* Turcz. [= *Silene fortunei* Vis. ex Rohrb.], *Silene jensiseensis* Willd., *Gypsophila oldhamiana* Miq.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2011 년³³⁾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Gypsophila Radix* 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Stellariae Radix* 를 인정하였다. 앞서의 山銀柴胡 중에서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은 벼룩이울타리 *E. juncea*와 가는다리장구채 *S. jensiseensis*, 대나물 *G. oldhamiana* Miq.이다. 그러나 1995 년에 발간된 《원색한국기초식물도감》³⁴⁾의 대나물 기재문에는 ‘뿌리는 약용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벼룩이울타리나 가는다리장구채에는 약용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규격집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았던 *S. dichotoma* var. *lanceolata* 를 배제하고 국내에서 자생하면서 약용하였던 대나물만을 기원으로 하다가, 중국과의 수교가 1992 년에 이루어지고 점차 한약재의 수출입이 확대된 즈음에 *Stellariae Radix* 가 공정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따름이다.

결론

대체로 16 세기 초까지의 銀柴胡는 柴胡의 일종 또는 위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本草綱目》 이후에는 일각에서는 柴胡의 아류처럼 인식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淸虛熱藥의 관점으로 銀柴胡를 사용하였다. 17 세기 말의 《本經逢原》에서는 銀柴胡를 柴胡로부터 독립시켜 별개의 약물로 분류하였으며, 그 효능에서도 ‘石斛과 크게 멀지 않고 淸熱할 뿐만 아니라 涼血을 겸한다.’는 기원과 부합하는 새로운 인식을 보였다. 《本草綱目拾遺》는 현대 본초학에서의 주지증과 거의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本草求真》는 약리를 심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세기에도 여전히 柴胡와 銀柴胡 간에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中華民國 시대에 정리되는 경향을 보이나,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 상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중국은 1963 년부터 꾸준히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를 銀柴胡의 기원 식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것은 山銀柴胡라는 이름으로 총칭하고 위품 또는 대용품으로 취급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Gypsophila oldhamiana* 를 기원으로 삼다가 2011 년에 이르러서 *S. dichotoma* var. *lanceolata* 를 추가하였는데 그 배경이 확실치 않다. 다만, 국내 전문 식물 서적에 *Gypsophila oldhamiana* 를 약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앞으로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한약표준자원 활용기술 개발’(KSN2012320)의 지원을 받았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본초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본초학, 4版. 서울:영림사. 2020:275-6.
2. 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한의방제학. 서울:군자출판사. 2020:288,366,408-11,414,1450.
3.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20-73호, 공포 2020-8-25. 일부개정. 시행 2020-11-26.
4. 国家药典委员.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15年版. 北京:中国医药科技出版社. 2015:31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제 7 판.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1:327.
6. 주영승. 증보은곡본초학. 전주:도서출판 우석. 2013:566-8.
7. 中国医学院科学院药物研究所 et al. 中藥志.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9:1:504-10.
8. 蘭茂. 滇南本草. 明, 1436. In: 陸拯, 包來發, 陳明顯 (eds). 滇南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3:63.
9. 李時珍. 本草綱目. 明, 1578. In: 趙錡 (ed). 本草綱目(校點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785-8.
10. 蘇頌 et al. 本草圖經. 宋, 1062. In: 尚志鈞 (ed). 本草圖經. 合肥: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101-2.
11. 陳師文 et al. 太平惠民和劑局方. 宋, 1078-1085. In: 太平惠民和劑局方, 影印本. 台北:旋風出版社. 1975:2-3(卷六).
12. 王歷, 王湜, 劉昉. 幼幼新書. 宋, 1150. In: Sturgeon D. Chinese Text Projec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370909&searchu=%E9%9B%9E%E8%82%89%E7%85%8E%E4%B8%B8&remap=gb> (accessed 2021-05-10)
13. 倪朱謨. 本草彙言. 明, 1624. In: 鄭金生, 甄雪燕, 楊梅香永 (eds). 本草彙言.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5:43-5.
14.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明, 1624. In: 任春榮 (eds). 繆希雍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3-4.
15. 郭佩蘭. 本草彙. 清, 1655. In: 郭君双 et al (eds). 本草彙.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5:370-1.
16. 李中梓. 本草通玄. 清, 1667. In: 付先軍, 周揚, 范磊, 王全利 (eds). 本草通玄.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5:13.
17. 張志聰. 本草崇原. 清, 1674. In: 劉小平, 姜典華 (eds). 本草崇原.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28-9.
18. 閔鉞. 本草詳節. 清, 1681. In: 張效霞 (ed). 本草詳節.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5:39-40.
19. 汪昂. 本草備要. 清, 1694. In: 鄭金生 (ed). 本草備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39-40.
20. 汪昂. 本草易讀. 清, 1615-1695. In: 呂廣振, 陶振崗, 王海亭, 唐永忠 (eds). 本草易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7:138-9.
21. 張璐. 本經逢原. 清, 1695. In: 顧漫, 楊亦周 (eds). 本經逢原.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44-5.
22. Baidu 百科. 道地药材第 61 部分 : 银柴胡.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item/%E>



- 9%81%93%E5%9C%B0%E8%8D%AF%E6%9D%90%E7%AC%AC61%E9%83%A8%E5%88%86%EF%BC%9A%E9%93%B6%E6%9F%B4%E8%83%A1/55684533?fr=aladdin (accessed 2021-05-12)
23. 趙學敏. 本草綱目拾遺. 清, 1765. In: 閔志安, 肖培新 (eds). 本草綱目拾遺.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7:72-3.
 24. 黃宮繡. 本草求真. In: 王淑民 (ed). 本草求真.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319-20.
 25. 嚴潔 施雯 洪煒. 得配本草. 清, 1761. In: 鄭金生 (ed). 得配本草.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7:53-4.
 26. 楊時泰. 本草述鉤元. 清, 1833. In: 黃雄, 崔曉艷 (eds). 本草述鉤元釋義. 太原: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9:171-4.
 27. 姚瀾. 本草分經. 清, 1840. In: 范磊 (ed). 本草分經.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5:75.
 28. 張秉成. 本草便讀. In: 張效霞 (ed). 本草便讀. 北京:學苑出版社. 2010:29-30.
 29. 唐宗海. 本草問答. 清, 1893. In: unknown (ed). 台北:力行書局有限公司. 1978:30.
 30. 曹炳章. 增訂偽藥條辨. 清, 1901. In: 劉德榮, 陳竹友 (eds). 增訂偽藥條辨. 福州: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4:36.
 31. 張山雷. 本草正義. 民國, 1914-1932. In: 程東旗, 路志正 (eds). 本草正義. 福州: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6:80-1.
 32. 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药典委员会. 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63 年版.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63:257-8.
 33.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1-12 호. 일부개정. 시행 2011-3-22.
 34. 이우철.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 서울: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96:81,84,91.